

지역 소식통

부안, 에너지바우처 추진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등을 1명 이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올 연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8만 8000원에서 최대 15만 2000원까지 지원되며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정읍시가 시민에게 탄탄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하는 건축 민원 상담 내방객을 위해 시청 1층 종합민원관에서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건축 민원 상담실은 7월부터 18일까지 2주간 무료로 진행된다. 건축 민원 상담실은 주민들에게 건축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시간·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건축 행정서비스다.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19명의 전문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설계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한 상담과 행정절차를 위한 안성화 가능 여부, 양성화 절차 등이다. 특히, 관계 법규 설명과 시공 요령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국도비 5703억 확보

올보다 291억 증가, 역대 최고... 군정 현안 추진 탄력 정치권 협치 중앙부처·국회 전방위적 발품행보 성과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안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5703억 원을 확보해 민선7기 후반기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은 국가시행사업 2775억원, 군시행사업 2928억원 등으로 지난해 5412억원에 비해 291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이달 초 공모 선정돼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안 상

권케상사 사업(총사업비 80억)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과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총사업비 2조 9031억원),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총사업비 577억) 등 중장기 대규모 계속사업이 202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돼 2021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등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



부안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5703억 원을 확보해 민선7기 후반기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창군, 내년 정부예산 1452억 확보

올보다 9.6% 늘어 신산업 속도

고창군이 농산물유통, 발효식품,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거 정부예산을 확보해 민선 7기 4년차 운영에 탄력이 예상된다.

고창군은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총 1452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27억 원(9.6%) 늘어난 것으로 현지 전라회와 고창군의 단계별(부처·기재부·국회심의) 맞춤형 대응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100년 고창을 먹여 살릴 2개의 축인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 분야에서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가 뒷받침되며 신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선 '산자유 통시설(APC)지원사업(총사업비 40억)'의 국비지원을 어렵게 따내 그간 농산물 상품화 과정에서 부족한 물류

기기와 장비를 추가 구입해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로 부가 가치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지역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총사업비 31억 원)의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며, 내년 북부권 임대사업소가 구축되면(총 4 곳) 고창군 동서남북 어디서든 단 15분 이내 농기계 임대대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총사업비 10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보급사업(총사업비 80억)' 등 농산물 유통개선과 영농기반 사업 등이 다수 정부예산 사업에 포함됐다.

'역사문화관광' 분야에선 '무장현 관아와 음성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무장현 관아와 음성 발품 과정 등에서 비경전전회 등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는 드라

마형유물로 알려지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분야별로는 '고창읍 도시생태축복원사업(총사업비 70억 원)', '인건강 병마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총사업비 18억 원)', '고인돌박물관 보강사업(총사업비 15억 3000만 원)',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정비 및 활용사업(총사업비 20억 원)', '고창죽림리 지식도군 보존관리사업' 등이 공모에 선정됐다.

'주민생활개선사업'은 고창읍 전통시장 주변 구도심을 '음식·소리·치유'를 테마로 바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총사업비 122억 원)',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총사업비 40억 원)' 등도 공모에 선정됐다.

이밖에 안전고창 실현을 위한 '장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94억 원)', '병동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총사업비 30억 원)', '재해취약저수지 정비사업(총사업비 47억 원)' 등도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 하반기부터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순기별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을 세우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 및 세종사무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 연대를 강화하며 발품행보를 펼친 것이 주요했다.

또 부안·김제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의 역할도 매우 컸다.

이원택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군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을 살펴보면 민선7기 군정을 견인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동화농민회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271억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소장품 확보 11억원(총사업비 82억원), 상왕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개발 22억원(총사업비 300억원), 새만금 비산단지 차단 에코숲 벨트 조성 37억 6000만원, 전북년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2억원(총사업비 100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가 보장되며 지역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신속한 제설작업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 제설 준비 '이상무'

정읍시, 장비·자재 사전확보

정읍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신속한 제설작업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 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 등을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구간인 과교인체교 등 주요요목 5개소와 추령재를 비롯한 고갯길 8개소에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개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기상 상황별·단계별 대응 메뉴얼에 따라 비상 근무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대설특보 시에는 시청 전 직원이 비상 체계에 들어가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 휴일과 출·퇴근 시간대의 기습 폭설에 대비해서는 SNS를 활용한 비상 연락체계, 사전비상 근무 예고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제설작업의 체계적인 시스템화와 유관기관·민간지원봉사

자 공조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제설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 장치 2개소와 열선 1개소를 설치했고, 민간업체와 15톤 덤프 9대를 임대계약했다.

또 취약구간인 추령재와 구절재 등 일정 구간을 민간업체에 용역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제설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과 이면 도로는 소형 덤프 2대를 이용해 염화칼슘 용액 살포 등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설 비축 자재도 약 30일분을 확보했고, 모래주머니 2만 개와 제설한 50개도 시가지 주요요목길과 터널, 교량 등 취약지역에 배치했다. 고갯길이나 버스 오지노선 등 취약지역은 모니터 요원과 주민 자율 제설반을 편성했고, 폭설로 인한 교통우왕에 대비해 경찰서와 군부대의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읍면동 지역의 마을진입로와 마을간 연결도로는 기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427대를 활용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설 취약구간인 철보 구절재와 내장 방산재, 신태인읍의 염화물 저장탱크에 염화물 용액 20톤을 배치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CCTV관제센터, 안전지킴이 역할 '특독'

실종 치매 노인 귀가 도와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 관제요원의 빠른 대처로 지역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귀가하게 한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관제센터 황선탁 요원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 노인의 이동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5일 정읍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4시

경 신태인읍 소재 자가에서 치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황 요원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지역 내 방법을 CCTV 분석으로 치매 노인의 최종 이동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해 경찰에 제공했다.

황 요원의 투철한 직업 정신과 빠른 대처 능력이 자칫 탈진이나 추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요구조자를 조기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